

# 카자흐스탄 한인 동포와 모국어

---

임홍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머리말

본고는 1998년 7월에 실시된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모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이다.

카자흐스탄에 사는 한인 동포들은 약 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6%에 해당한다.<sup>1)</sup> 1937년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친 소련 정부의 강제 이주로 연해주(원동)를 떠나 이 곳에 온 한인은 20,170가구, 95,265명이었다고 한다.<sup>2)</sup> 그 동안 1만 5천 명 정도가 늘어난 셈이다. 혹독한 삶 때문이다.

설문 조사는 1998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 사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실시되었다. 응답지는 현지 한인에 의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sup>3)</sup> 작성된 것이다. 단 하나의 예외는 한국에서 실시된 것이며, 그 설문지도 현지에서와 달리 한국어로 된 것이었다. 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

---

1) 알마티 한국교육원(1998가) 및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1994) 참조.

2) 카자흐스탄의 지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산업 및 한인들에 대한 소개는 알마티 한국교육원(1998가)의 '카자흐스탄 안내' 및 심영섭·김 게르만 편(1996) 그리고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1996) 등을 참고하였다.

3) 간접 조사는 전화 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니라리사의 모친의 도움에 의한 것이다.

에 응답자의 수는 자연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응답자의 수가 적더라도, 현지의 한국어 사용 실태의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면의 제약으로 모든 항목을 자세히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설문 중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한인 동포들의 언어 문제를 살피기로 한다.

## 2. 조사의 진행과 응답자의 인적 사항

설문지는 중국 연변 조선족의 언어 문제를 다룬 이익섭(1996)을 모델로 하여 작성하였다. 카자흐스탄에는 카자흐어의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어, 러시아어 관련 사항과 함께, 카자흐어 관련항을 더 추가하였다. 설문지는 애초 우리말로 준비하였으나, 출발 직전에 러시아어판 설문지를 다시 준비하였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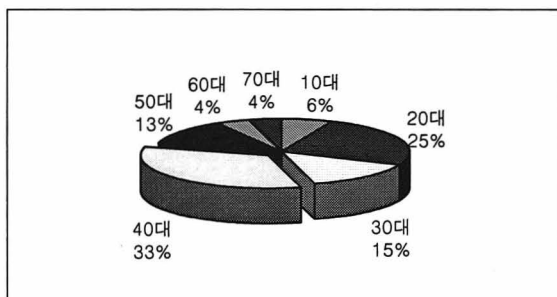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현지에서의 설문 조사는 1998년 7월 14일과 17일 사이에 알마티<sup>5)</sup>와 우슈토베 두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조사 기간은 국내에서의 조사까지 합치면 7월 초에서 17일 사이에 걸친다. 한국교육원의 하계 한국어 교사 연수회에 참석한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사 및 학생들이 조사에 협조하여 주었고, 고려극장의 단원 여러분도 협조해 주었고, 우슈토베의 한국어 교사분들도 조사에 협조해 주었다.<sup>6)</sup> 개인적으로는 나라리사 가족분들도 조사지를 작성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응답지가 모두 48부였다.

본격적인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양이다. 비록 양이 적어도 결과 보고서는 작성되어야 한다. 조사가 그렇게 흔히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설문 조사에 적합한 환경이 늘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다.

- 
- 4) 설문지의 러시아어 역은 전적으로 나라리사의 도움을 받았다.  
 5) '알마타'는 러시아어 이름이며, '알마티'는 카자흐어 이름이다. 현지 발음은 '알마 락'에 가깝다. 시릴 문자 й를 로마자 y로 적은 것인데, y를 '이'로 읽은 것이다.  
 6) 하계 한국어 교사 연수회 참가자 및 고려극장 단원 그리고 우슈토베 한국어 교사 여러분에게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심영섭 한국교육원 원장의 배려와 도움에 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알마티 한국교육원의 천강우 선생께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슈토베에서는 인발렌티나 바실리에브나 부시장의 도움도 받았음을 밝히고자 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의 이현우 선생께도 도움을 받았다.

## (1) 피조사자의 연령 분포



가장 많은 것이 40대(33%)이고, 그 다음이 20대(25%)이고, 다음이 30대(15%)이고, 그 다음이 50대(13%)이다. 40대가 가장 많은 것이 이 조사의 한 특징이다. 고려 극장 단원들과 우슈토베 한국어 교사들이 조사에 참여한 까닭이다. 10대가 포함된 것도 큰 특징이다.<sup>7)</sup> 60대와 70대라 해도 이미 1937년 이주 1세대는 아니다. 출생지와 성장지가 모두 카자흐스탄이거나 출생지가 함경북도, 성장지가 중국 길림성인 사람도 있었다. 20대와 40대 중에도 출생지를 사할린으로 하는 응답자가 있었으므로, 37년 이후에도 러시아에서의 개인적인 이주나 이동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 조사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응답자의 직업에 배우와 교원이 많다는 것이다. 배우도 말을 중요한 도구로 다루는 사람들이고, 교사도 말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조사가 현지에 사는 평균적인 한인 동포의 모국어 사용보다는 모국어에 대하여 많은 적든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 사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많다.

## 3. 언어 상황과 한인 동포들의 언어 능력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터키어의 한 방언인 카자흐어를 제1 공용어로 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러시아어가 공용어의 위치에 있다. 카자흐스탄 한인은 러시아어

7) 이는 나라리사 가족의 덕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를 습득해야 하고, 카자흐어도 습득해야 하고, 또 한국어도 습득해야 한다.

설문 2는 (2)와 같다.<sup>8)</sup> (2가·다)는 응답의 결과를 다시 정리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2) 설문 2: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                                        |     |
|----------------------------------------|-----|
| 가. 카자흐말과 러시아말.....                     | 2%  |
| 나. 카자흐말과 러시아말과 고려말 <sup>9)</sup> ..... | 4%  |
| 라. 러시아말.....                           | 38% |
| 다. 러시아말과 고려말.....                      | 56% |

(2가·라)에는 모두 러시아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카자흐스탄 한인은 누구나 일상 생활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카자흐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가, 나)의 분포를 합쳐 6%이다. 카자흐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2나, 라)를 합쳐 60%이다.

한국어 사용 능력을 묻은 것이 설문 3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설문 3: 고려말 사용 능력은?**

|                                       |     |
|---------------------------------------|-----|
| 가. 고려말을 거의 할 줄 모른다.....               | 6%  |
| 나. 고려말을 듣는 것은 좀 되어도 말은 하지 못한다.....    | 4%  |
| 다. 고려말을 듣는 것도 좀 되고 말하는 것도 좀 된다.....   | 52% |
| 라. 고려말을 비교적 잘 한다고 생각한다.....           | 15% |
| 마. 고려말을 말하고 듣는 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 23% |

8) 여기 보인 것은 설문의 형식 그대로가 아니다. 설문과 응답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자가 다시 정리한 것이다.

9) 여기서 '고려말'은 한국어를 가리킨다. 본래의 한국어 설문지에는 '고레말'과 같이 적었던 것이다. '고레'를 '고려 왕조'의 '고려'와 관련시키기보다는 '카레이스키'의 '카레'와 관련시키기도 한다.

(3라)와 (3마)에 응답한 사람을 상위 그룹이라고 한다면, (3다)를 중위 그룹, (3가, 나)를 하위 그룹이라 할 수 있다. (3)은 상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38%, 중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52%, 하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10%임을 보여 준다. 중위 그룹이 반을 넘는다. 이 그룹을 모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그룹이라고 할 때, 한국어 사용 인구는 그만큼 제한된다.

설문 4는 카자흐어 사용 능력을 묻은 것이다. 카자흐어를 비교적 잘 한다고 답한 사람이 5%, 카자흐어를 말하고 듣는 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2%이다. 10%를 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어는 전략적으로도 익힐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설문 5는 한국어, 러시아어, 카자흐어를 사용하게 된 시기를 묻은 것이다. 96%의 사람이 3세~7세 사이에 러시아어를 습득했다고 답했고, 같은 시기에 한국어를 습득했다고 답한 사람이 41%였다. 59%의 사람이 20세 이후에 카자흐어를 익히고, 52%의 사람이 한국어를 익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습득의 시기가 20세 이후로 미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어 습득의 효과가 떨어진다.

세대가 달라짐에 따라 한국어 사용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가를 보려 한 것이 설문 8이다. 그 결과를 (4가-라)와 같이 보이기로 한다.

(4) 설문 8. 가족들의 고려말 사용 능력은?

|                | ㄱ. 할아버지/할머니 | ㄴ. 아버지/어머니 | ㄷ. 나 | ㄹ. 아들/딸 |
|----------------|-------------|------------|------|---------|
| 가. 80점 이상..... | 91%         | 54%        | 17%  | 11%     |
| 나. 50-79점..... | 9%          | 30%        | 30%  | 21%     |
| 다. 30-59점..... | 0%          | 11%        | 25%  | 11%     |
| 라. 30점 이하..... | 0%          | 5%         | 3%   | 57%     |

(4가)는 80점 이상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할아버지/할머니이고, 그 다음이 아버지/어머니이고, 그 다음이 '나'이고, 그 다음이 아들/딸이다. (4라)에서도 대체로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30점 이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아들/딸 세대다. 한국어 사용 능력은 세대가 바뀌면서 자꾸 낮아진다.

#### 4. 한인 동포들의 언어 생활과 모국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설문 9이다. 집안, 학교, 시장, 관공서, 교회, 병원 등에서 쓰이는 말을 물은 것이었다. 거의 모든 장소에서 러시아어가 압도적으로 쓰이고 있다. 집안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 러시아어라고 답한 것이 75%이다. 한국어를 쓴다는 응답도 21%에 달하는 것이나, 러시아어는 한인 동포의 가정에서도 이미 지배적인 언어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93%가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쓴다고 답하였다. 러시아어가 교육의 언어임을 말해 준다. 시장이나 병원에서도 러시아어를 쓰는 비율이 높다. 한국어의 사용 비율이 다소 높아짐을 보이는 것은 교회와 관공서에서이다. 일부나마 관공서에서의 고려말 사용이 특이한데, 카자흐스탄의 소수 민족 정책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는 소수 민족의 언어에 지나지 않으며, 그 사용은 가정에서도 극히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 생활은 전반적으로 러시아어로 이루어지며, 부분적으로 카자흐어가 사용되는 정도이다.

설문 10은 한국어가 사용되는 장면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나 아들딸에게 말할 때, 학교에서 고려 친구들과 놀 때,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고려 친구들과 장래에 관해 토론할 때, 전화가 와서 수화기를 들고 첫말을 할 때, 시장에서 고려 사람한테 물건을 살 때, 고려 사람들이 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 관청에 가서 고려 사람한테 사무를 볼 때 등과 같은 여러 상황에서 어느 언어를 쓰는지를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을 할 때 한국어를 쓴다는 응답이 72%로 가장 많다. 이 때에도 러시아어를 쓴다는 답이 22%로 나타난다. 러시아어가 일상 언어화한 단면이다. 전반적으로는 세대가 내려옴에 따라 러시아어의 사용 비율이 높고 한국어 사용 비율이 낮아진다. 한인 학생들이 친구들과 놀 때에 한국어보다는 러시아어를 쓴다는 사람도 59%나 된다. 학교의 수업 때도 94%가 러시아어를 쓴다고 답하였다. 러시아어는 학교 교육의 도구라는 것이 확실하다. 수업에서도 한국어를 쓰는 일이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10)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되는 '고려일보'도 국영이며, '고려말 방송국'도 국영이다.

특징적인 것은 고려 친구들과 장래에 관해 토론할 때 또는 시장에서 고려 사람에게 물건을 살 때, 고려 사람들이 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 관청에 가서 고려 사람에게 사무를 볼 때와 같은 때에 한국어의 사용 비율이 낮아지고 러시아어의 사용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해당 장면들은 표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개념도 정확해야 하고, 그 쓰임도 정확해야 한다. 자칫 실수라도 한다면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른다. 이 경우 화자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말을 써야 한다. 잘 알고 있는 말은 러시아어이다. 그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어의 사용은 자꾸 위축된다.

전화에 대한 첫 응답은 예외없이 러시아어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화의 상대는 미지의 대상이므로, 지배적인 공용어가 선택되게 마련이다.

## 5. 한인 동포들의 한국어 접촉과 습득

설문 11-13은 일상적인 대화 외에 문자 매체나 방송 매체 혹은 교육 기관을 통하여 한국어와의 접촉이나 교육이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설문 11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 설문 11. 고려말 방송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                               |     |
|-------------------------------|-----|
| 가. 고려말 방송이 없거나 듣지 않는다.....    | 5%  |
| 나. 고려말 방송이 있으나 거의 듣지 않는다..... | 15% |
| 다. 고려말 방송을 비교적 자주 듣는다.....    | 57% |
| 라. 고려말 방송을 매일 즐겨 듣는다.....     | 13% |

(5다, 라)를 합치면 한국어 방송을 비교적 자주 듣는 사람이 70%나 된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고려말 방송이 매우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고,<sup>11)</sup> 라디오 방송보다는 텔레비전 방송을 즐겨듣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때<sup>12)</sup> 이는

11) 카자흐스탄의 고려말 방송국 김옥려 국장에 의하면 고려말 방송은 FM 주파수 67로 주 4회(월, 수, 금, 일)에 걸쳐 오후 6:40~7:00 사이에 방송된다.

12) 고려 텔레비전 방송국이 국영으로 설치된 것은 1991년 2월 4일이라고 한다. 신브로니

다소 의외의 수치이다.<sup>13)</sup> 이는 본 조사의 대상이 한국어 교사나 배우들과 같이 언어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지 모른다.

설문 12는 (5)와 거의 같은 질문을 신문에 대하여 해 본 것이다. 신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신문이 주간이므로, 매일 신문을 읽을 수도 없는 일이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는 쓰는 언어보다는 듣거나 말하는 언어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설문 13은 한국어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은 것이고, 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인가를 묻은 것이다. 정식으로 배운 일이 있다는 대답이 62%에 이르고, 받은 일이 없다는 대답이 38%에 이른다. 배운 곳에 대해서는,<sup>14)</sup> 대학이라고 답한 사람이 47%("연세대 한국어학당"도 이에 포함시킨다)이고, 한국교육원이라고 답한 사람이 19%이고, 학교라고 답한 사람이 19%이고, 고려 극장이라고 답한 사람이 15%이다.

고려 극장에서 엄격한 한국어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하더라도, 고려 극장이 정식의 교육 기관은 아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도 대규모의 교육 기관은 아니다.<sup>15)</sup> 설문 13에 응답을 한 사람의 수가 전체 응답자의 58%밖에 되지 않는다. 응답을 하지 않은 40% 가까운 사람은 정식의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언어 교육, 특히 모국어 교육은 이른 시기에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도 크고

슬라브 국장에 의하면, 처음에는 월 1회 방송을 하였으나, 1993년부터 주 1회, 월 4회 방송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방송은 현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6:20~6:50 사이에 행해진다. 방송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러시아어이다.

13) 알마티 한국교육원에 근무하는 현지 한인 동포 빅토르 문 씨(30세 정도)가 토로한 바에 의하면, 고려말 방송을 듣는 일은 거의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고려말 방송국의 김옥려 국장에 의하면, 고려말 방송 청취자는 한인 동포 11만 중 30%라고 한다.

14) "독습"이라고 답한 것은 제외하였다. "남한" 또는 "서울"이라는 응답은 한국어에 와서 거리에서 한국어를 배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어느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배운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15)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는 전후반기별 연 2회 4개월 과정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초급반, 중등반이 주 2일 열리고, 주 2일반과 주 3일반의 대학생반이 열리고, 주 4일 통·번역반이 열리고, 3개월 과정의 교사 양성반이 주 5일 열리고 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1998년) 참조.



그 기억도 오래 가는 것이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한인 동포들이 한국어를 배운 기관은 대체로 나이가 들어서 접하게 되는 곳이다. 우슈토베에서, 현지의 담당자는 한국에서 보내 준 한국어 교재에 문법 설명이 없어 배우기가 어렵다고 토로하였다.<sup>16)</sup> 이는 한국에서 그 교재를 보내는 사람은 우리의 초등학교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보냈으나, 실제로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은 나이가 꽤 든 학생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 6. 한인 동포들과 한국어의 위상

설문 14-16은 한인 동포들에게 한국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묻은 것이었다. 설문 14와 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 (6) 설문 14. 고려 사람은 고려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가. 사회에서는 카자흐말이 더 필요하므로 그것을 배워야 한다.....7%  
 나. 사회에서는 러시아말이 더 필요하므로 그것을 배워야 한다.....16%  
 다. 고려 사람은 고려말을 배워야 한다.....73%

실제로 설문 14에 대한 응답은 아주 복잡한 것이었다. 설문 의도는 한국 동포가 꼭 배워야 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었는데, 실제로에 대한 응답은 여러 언어에 동그라미를 한 것이 많았다. 설문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카자흐스탄 현지의 사정은 이들 언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 응답 중 (6가)에만 기표를 한 것은 2%에 지나지 않았고, (6나)에만 기표를 한 것은 없었다. (6가, 나)에 동시에 기표를 한 것이 2%, (6가, 나, 다) 모두에 기표를 한 것이 6%, (6가, 다)에 기표를 한 것이 4%, (6나, 다)에 기표를 한 것이 13%이었다. (6다)의 결과는 다른 두 언어보다도 고려말을 배워야 한다는 배타적인 의식의 반영은 아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현실은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16) 이는 카라탈 지역 부시장인 인 발렌치나 바실리에브나의 지적이다.

설문 15는 카자흐 처녀가 고려 총각과 결혼을 하면 고려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이었다. 이는 한인 사회의 결속력이나 개방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설문이다. 이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한 것이 82%,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 18%였다. 카자흐스탄 한인 사회가 완전히 개방적이라면, 카자흐 처녀가 시집왔다고 특별히 한국어를 배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6가)가 82%나 되는 것은 한인 사회의 결속력이 아직 큼을 말해 준다.

(7) 설문 16. 고려말을 할 줄 알면 유리한 점은?

- 가. 취직에 유리하다.....13%
- 나. 사람 사귀기에 유리하다.....24%
- 다. 고려 사람으로 댈댈하다.....63%

(7다)가 많다. 그러나 (7가, 나)도 적은 비율이 아니다. 한국어의 효용이 단 순히 관념이나 명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한국어를 배우는 데는 현실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 (7)의 설문 16은 애초 순위를 매겨 달라는 것이었으나, 요구대로 답해 준 응답자는 극히 적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주된 항목 하나에만 동그라미표를 하였다. 여기서는 요구대로 순위를 답한 경우도 1순위 하나만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7)에 보인 수치는 그 결과이다.

설문 17은 각 언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나치게 주관적 정서를 묻는 것이 흠이었다.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0% 이상을 얻은 항목을 중심으로 지배적인 경향만을 성격화하여 보면, 카자흐스탄 한인에게 있어 한국어는 점잖고 상냥하고 간사하고 정다운 언어인 반면, 러시아어는 점잖고 씩씩하고 믿음직하고 간사하고 유식해 보이는 언어라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카자흐어는 아직 무뚝뚝하고 시골티가 나는 언어라는 것이 된다. 러시아어의 위력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카자흐어에 대해서는 아직 친숙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 대해서는 혈연적인 친근감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7. 맺음말

카자흐스탄에는 11만 우리 동포와 함께 한국어도 분명 살아 있다. 그들은 1937년 강제 이주에도 불구하고 사막과도 같은 토지에 논을 풀고 밭을 갈아 오늘을 이루었다. 우수토베의 거칠고 황량한 벌판이 그들 삶의 터전이었다. 첫 이주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국어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카자흐스탄 한인 동포들에게 한국어는 차츰 서툰 언어가 되어 가고 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삶의 기반이 잡히고, 활동 무대도 넓어지고, 생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교육이 중요하게 되자, 지배 언어 습득이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이다. 러시아어를 믿음직한 것으로 보는 비율이 62%에 이르고, 러시아어를 유식해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64%에 이르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다.

(6다)에서 고려 사람은 고려말을 배워야 한다고 답한 것이 73%에 이르고, (7다)에서 고려 사람이 고려말을 하는 것을 몇몇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64%에 이르는 것을, 어느 일면 크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이 수치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이 수치는 한국어 가운데 고급 어휘를 27%나 36% 잊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이루는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27%나 36%를 잃은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이 적은 수치일 수 없는 이유이다.

설문 5와 13에 대한 응답은 모국어 습득이 비교적 나이가 들어 이루어짐을 암시한다. 모국어에 대한 자각이나 관심이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는 한국어의 효용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발전상이 현지에 소개되고,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밭을 내디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사 기간 동안 만난 어떤 농부의 말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한인들은 1988년 한국의 올림픽 이후 비로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의 중요한 부분이 모국의 발전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힘이 닿는 한, 한국어 교육이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현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 가령 제대로 된 한려 사전 같은 것도 하루바삐 만들어 한국어 교육이 질적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카자흐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것이 생존의 언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설문 조사는 약점을 많이 가지는 것이었다. 문항도 단순화시키고, 지시도 좀더 세밀하게 했어야 한다. 가능한 응답을 미리 예상하여 원하지 않는 응답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야 한다는 반성도 해 본다. 그러나 이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필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어느 정도 수치로 나타내 보일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1998). “카자흐스탄 알마티 귀국보고서 : 92, 94, 95, 97년”. 『98년 한국어 전문가 파견 참고자료』.
- 권희영(1996). 『세계의 한민족: 독립국가연합』. 통일원.
- 김세중(1993). “중앙아시아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새국어생활』 제3권 제3호, 193-199.
-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1996). “카자흐스탄”. 두산동아 『세계대백과사전』. 주식회사 두산동아.
- 심영섭[Сим Енг Соб] · 김 게르만[Ким Герман] 편(1998). 『카자흐스탄 한인사』 : 고문서 자료 제1집. 알마아타 한국교육원.
- 알마티 한국교육원(1998가). “카자흐스탄 안내”. 유인물.
- 알마티 한국교육원(1998나). “알마티 한국교육원: 업무 및 프로그램 소개”. 브로슈어.
- 이익섭(1996). “중국 연변 조선족의 모국어 선택”. 『이기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Destination Kazakhstan”. <http://www.lonelyplanet.com/dest/cas/kaz.htm>.
- Козыбаева, С. К. ред., Ян, В. С. и Ким, Б. сос. (1998). Время Газетной Строкой. Корё ильбо.